

대전지역 사립대학 예결산서 분석

1. 들어가며

등록금 문제가 사회문제화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제한파 속에 연간천만원에 이르는 등록금은 서민가계의 큰 고통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몇 년간 이어온 등록금 인상이 과연 적정한지 대전지역 각 사립대학의 예결산서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전지역 국립대학과 전문대학이 있지만 사립대학의 등록금 부담이 훨씬 크다는 현실과 회계방식이 서로 비슷하기에 대전지역 4개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몇 가지 항목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2. 연왕

1)등록금 수입

(단위:천원)

	2007년예산	2007결산	달성률	2006예산	2006결산	달성률
대전대학교	69,970,714	74,805,960	106.9%	62,818,774	68,413,989	108.9%
목원대학교	63,107,217	68,631,352	108.8%	58,748,506	64,502,426	109.8%
배재대학교	67,809,861	66,739,457	98.4%	59,528,590	61,094,308	102.6%
한남대학교	87,599,545	90,863,687	103.7%	80,632,027	82,528,941	102.4%

(표1. 대전지역사립대학 등록금수입 예·결산) 출처: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대학별 등록금수입 예결산의 차이를 살펴보면 2006년엔 평균 37억, 2007년엔 31억원원 정도의 등록금 수입이 축소 편성되었다. 이는 전형적인 예산편성의 문제로 수입은 작게 잡고 지출은 크게 잡음으로 인해 차액이 고스란히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2) 전입금수입

사립대학에 들어오는 법인전입금 규모는 법인의 대학교육 기여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전입금은 보통 경상비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 자산전입금, 부속병원전입금, 특별회계전입금, 교내전입금, 산학협력단전입금, 학교기업전입금으로 나뉘어지나 경상비전입금과 법정부담전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입금은 거의 없는 상황이기에 경상비전입금과 법정부담전입금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한다.

2-1)경상비 전입금

(단위:천원)

	2007예산	2007결산	달성률	2006예산	2006결산	달성률
대전대학교	742,360	135,091	18.2%	150,000	48,120	32.1%
목원대학교	200,000	2,094	1.0%	180,000	176,958	98.3%
배재대학교	203,000	19,963	9.8%	2,754,360	1,255,492	45.6%
한남대학교	515,000	475,903	92.4%	410,000	387,639	94.5%

(표2. 대전지역사립대학 경상비전입금 예·결산) 출처: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2-2)법정부담전입금

(단위:천원)

	2007 법정부담금	법인부담액	납부를	2006 법정부담금	법인부담액	납부를
대전대학교	1,225,960	400,000	32.6%	1,070,462	400,000	37.3%
목원대학교	1,412,526	0	0%	1,186,215	0	0%
배재대학교	1,335,022	78,119	5.8%	1,262,229	0	0%
한남대학교	1,873,449	100,000	5.3%	1,731,186	65,900	3.8%

(표3. 대전지역사립대학 법정부담전입금 예·결산) 출처: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위의 표를 살펴보면 경상비 전입금의 경우 전체 예산에 비해 예산이 소액임에도 그나마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정부담전입금이다. 전출유무가 그나마 자유로운 다른 전입금과 달리 법정부담전입금은 반드시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높은 대전대학교가 32%수준이고 아예 내지 않거나 5%수준의 금액만 내고 있는 실정이다.

3)2007년 운영수입대비 수입재원별 구성비율

(단위:천원)

	구분	등록금	법인전입금	국고보조금	기부금
대전대학교	A	90.5%	2.1%	0.6%	1.9%
	B	83.3%	1.9%	5.0%	1.8%
목원대학교	A	90.8%	0.02%	1.3%	1.0%
	B	84.8%	0.02%	5.7%	1.1%
배재대학교	A	89.4%	0.1%	0.6%	1.6%
	B	79.6%	0.1%	6.1%	1.5%
한남대학교	A	86.1%	0.5%	2.1%	6.5%
	B	81.5%	0.5%	3.6%	6.3%

(표4. 2007운영수입대비 수입재원별 구성현황) 출처: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주1)A:교비회계기준. 등록금은 단기수강료제외 B:교비회계+산학협력단회계(내부거래미제거, 산학협력단에서 법인 전입금은 '학교법인전입금'을,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수익'을, 기부금은 '기부금수익'을 합산대상으로 함)

주2)비율=각 재원/운영수입

구분	등록금	법인전입금	국고보조금	기부금
A	74.4%	5.1%	1.5%	4.2%
B	64.2%	4.5%	10.4%	3.8%

(표5. 2006년 사립대학 운영수입 대비 수입재원별 구성현황)

출처:사립대학예산분석실무.34p

주1)A:교비회계기준. B:교비회계+산학협력단회계(내부거래미제거, 산학협력단에서 법인전입금은 '학교법인전입금'을,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수익'을, 기부금은 '기부금수익'을 합산대상으로 함)

주2)비율=각 재원/운영수입

주3)대상수 : 대학143개교(일반대학대상), 등록금수입이 없거나 자료미비 대학 제외

위의 표를 살펴보면 교비회계의 경우 등록금 의존율이 90%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30%는 물론 전국사립대학 평균인 74.4%(2006년 기준)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법인전입금의 경우 재원이라 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교비회계 기준 전국평균인 5.1% 수준에도 못미치는 수치이다.

4)미사용전기이월자금

(단위:천원)

	2008결산	2007예산	2007결산	달성률	2006예산	2006결산	달성률
대전대학교	4,262,373	150,000	3,676,671	2451.1%	125,000	2,264,574	1811.7%
목원대학교	2,510,175	1,200,000	1,639,567	136.6%	700,000	1,356,622	193.8%
배재대학교	10,437,791	5,000,000	5,773,209	115.5%	5,000,000	5,024,380	100.5%
한남대학교	15,525,283	3,951,692	6,949,623	175.9%	5,305,360	10,254,461	193.3%

(표6. 대전지역사립대학 미사용전기이월자금 예·결산) 출처: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이란 전년도 자금수입총계에서 자금지출총계를 차감한 잔액이다. 이는 당해년도로 넘어와서 자금수입예산에 반영되는 것이다.

위 표를 살펴보면 적게는 4억에서 크게는 30억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물론 전년도 결산이 완료되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을 계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예상치는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서 넘어오는 이월자금이 너무 적게 계상되어지고 이는 그대로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이월자금 증가의 문제이다. 2008년의 경우 전기이월자금을 제외한 당기이월금이 적게는 3억에서 크게는 85억 까지 늘어나고 있다.

5)보수

(단위:천원)

	2007예산	2007결산	달성률	2006예산	2006결산	달성률
대전대학교	33,024,831	32,238,027	97.6%	30,324,184	30,185,172	99.5%
목원대학교	34,526,700	33,990,553	98.4%	33,239,781	30,952,841	93.1%
배재대학교	39,033,412	34,517,497	88.4%	36,043,549	32,159,288	89.2%
한남대학교	49,323,067	46,682,227	94.6%	47,367,902	45,148,740	95.3%

(표7. 대전지역사립대학 보수 예·결산) 출처: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보수는 통상적으로 교원이나 직원수, 각 직급별 임금액, 노사합의된 임금인상률 등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실제에 가까운 예산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12억에서 크게는 45억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산서만 놓고 보았을때 적게 지출하여 예산을 절약한 것처럼 볼 수 도 있다. 하지만 당초 예산을 세울때 지출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게 되면 그만큼 수입예산 또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지출예산 과다책정은 그만큼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6. 관리운영비

(단위:천원)

	2007예산	2007결산	달성률	2006예산	2006결산	달성률
대전대학교	10,121,251	12,754,144	126.0%	11,156,217	12,197,606	109.3%
목원대학교	16,051,283	13,749,238	85.7%	13,517,880	10,406,362	77.0%
배재대학교	10,282,445	7,515,878	73.1%	11,049,750	8,379,448	75.8%
한남대학교	9,480,013	9,264,852	97.7%	10,744,480	9,873,644	91.9%

(표8. 대전지역사립대학 보수 예·결산) 출처: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관리운영비는 건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관리비' 여비, 소모품비, 난방비, 전기수도료, 공과금 등이 포함된 일반 관리비, 홍보비, 업무추진비, 행사비 등이 포함된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운영비는 원활한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간접교육비로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한다면 절감도 가능한 항목이다. 표를 살펴보면 초과 지출된 경우도 있지만 대 전대를 제외하곤 2억에서 27억 가까이 차액이 나고 있다.

7. 투자와 기타자산지출(특정기금적립)

(단위:천원)

과목	2007예산	2007결산	달성률	2006예산	2006결산	달성률
건축기금적립	6,300	5,896	93.6%	4,320	4,320	100.0%
기타기금적립	3,259,540	1,043,681	32.0%	3,181,808	1,109,001	34.9%
합계	3,265,840	1,049,577	32.1%	3,186,128	1,113,321	34.9%

(표9. 한남대학교 특정기금적립 예·결산) 출처: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단위:천원)

과목	2007예산	2007결산	달성률	2006예산	2006결산	달성률
건축기금적립	550,000	5,619,729	1021.8%	546,356	650,849	119.1%
기타기금적립	368,000	417,975	113.6%	354,550	366,975	103.5%
합계	918,000	6,037,704	657.7%	900,906	1,017,824	112.9%

(표10. 배재대학교 특정기금적립 예·결산) 출처: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단위:천원)

과목	2007예산	2007결산	달성률	2006예산	2006결산	달성률
건축기금적립	113,600	3,549,433	3124.5%	355,000	10,379,729	2923.9%
기타기금적립	374,500	2,375,604	634.3%	290,000	7,316,047	2522.8%
합계	488,100	5,925,037	1213.8%	645,000	17,695,776	2743.5%

(표11. 목원대학교 특정기금적립 예·결산) 출처: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단위:천원)

과목	2007예산	2007결산	달성률	2006예산	2006결산	달성률
건축기금적립	0	0	0	0	0	
기타기금적립	390,000	4,591,349	1177.3%	160,000	3,714,674	2321.7%
합계	390,000	4,591,349	1177.3%	160,000	3,714,674	2321.7%

(표12. 대전대학교 특정기금적립 예·결산) 출처: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특정기금적립이란 학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기금을 별도로 적립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학교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지출을 하고 남은 자금으로 적립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일부대학에선 예산보다 크게는 40~50억 많은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이는 당초 예산보다 수입은 늘고 지출은 줄어들어 결국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건축기금의 경우 토지, 건물 등의 매입 신축에 쓰여지게 되는데 이는 법인의 자산전입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순전히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자산을 늘리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등록금 수입은 최대한 당해연도의 교육비로 사용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규정을 만들어 등록금 수입의 5% 이내만 적립 또는 이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8. 유형고정자산매입매출

유형고정자산매입지출은 대학의 각종 고정자산취득비용으로 토지매입비, 건물매입비, 구축물매입비, 건설가계정, 기계·기구매입비, 도서구입비, 집기매품매입비, 차량운반구입매입비, 박물관유물구입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자산매입지출 즉 토지매입비, 건물매입비, 구축물매입비, 건설가계정이다. (단위:천원)

과목	2007예산	2007결산	달성률	2006예산	2006결산	달성률
토지매입비	1,000,000	0	0.0%	1,000,000	283,438	28.3%
건물매입비	0	0		0	0	
건축물매입비	0	0		0	0	
건설가계정	10,000,000	7,806,485	78.1%	12,000,000	6,525,973	54.4%
합계	11,000,000	7,806,485	70.9%	13,000,000	6,809,411	52.3%

(표13. 대전대학교 자산매입지출 예·결산) 출처: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단위:천원)

과목	2007예산	2007결산	달성률	2006예산	2006결산	달성률
토지매입비	900,000	0	0.0%	1,000,000	554,495	55.4%
건물매입비	110,000	0	0.0%	350,000	715,767	204.5%
구축물매입비	0	0		0	0	
건설가계정	2,100,000	229,733	10.9%	1,924,553	692,195	36.0%
합계	3,110,000	229,733	7.3%	3,274,553	1,962,457	59.9%

(표14. 목원대학교 자산매입지출 예·결산) 출처: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단위:천원)

과목	2007예산	2007결산	달성률	2006예산	2006결산	달성률
토지매입비	4,550,970	757,000	16.6%	555,620	0	0.0%
건물매입비	1,000,000	221,650	22.2%	1	0	0.0%
구축물매입비	0	0		0	0	
건설가계정	8,554,480	2,319,630	27.1%	15,587,075	13,527,250	86.8%
합계	14,105,450	3,298,280	23.3%	16,142,696	13,527,250	83.7%

(표15. 배재대학교 자산매입지출 예·결산) 출처: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단위:천원)

과목	2007예산	2007결산	달성률	2006예산	2006결산	달성률
토지매입비	0	0		0	0	
건물매입비	0	0		0	0	
건축물매입비	0	69,950		400,000	209,922	52.5%
건설가계정	11,155,000	8,868,441	79.5%	11,723,000	12,924,074	110.2%
합계	11,155,000	8,938,391	80.1%	12,123,000	13,133,996	108.3%

(표16. 한남대학교 자산매입지출 예·결산) 출처: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단위:천원)

	2007예산	2007결산	달성률	2006예산	2006결산	달성률
대전대학교	391,640	1,007,234	257.2%	5,944,000	6,184,449	104.0%
목원대학교	0	0	0	0	0	0
배재대학교	3,000,000	10,000	0.3%	3,000,000	564,500	18.8%
한남대학교	0	0	0	0	34,085	

(표17. 대전지역사립대학 자산전입금 예·결산) 출처: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자산매입지출부분에선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번째는 대부분의 지출예결산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확대예산이다. 작게는 30억에서 크게는 100억까지 예산을 남기는 부분이다.

두 번째는 학교시설투자의 법인부담률이다. 2007년의 경우 학교시설투자 법인부담률[(자산전입금/자산매입지출)*100]이 높은 경우가 12% 수준이고 아예 0%인 경우도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제5조 1항), [대학설립·운영규정] 또한 “대학을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사와 교지, 교원의 1/2이상,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확보한 다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을 신청”(제2조 제1항 및 제3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볼 때 유형고정자산매입지출 가운데 ‘토지·건물·건축물매입비’ 및 건물의 신,증,개축 등에 소요되는 ‘건설가계정’ 지출은 법인이 부담해야하는 자산매입지출이다.

문제는 [사립학교법시행령]의 조항이다. 자산전입금 규모와 상관없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학교자산 취득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에 따라 사립대학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무리한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사립대학예산분석실무, 한국대학연구소, 38p~39p)

앞으로는 고정자산매입지출에 대해서도 등록금 수입의 5% 이내에서만 투자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0. 등록금 환원율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한남대	광역시소재대학
등록금환원율	105.15 %	100.93 %	107.66 %	108.99 %	129.67%

(표19. 2006년 대전지역사립대학 등록금환원율) 출처: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주1) 계산법:학생1인당교육비/(등록금(수강료제외)/재학생수)

대전지역 사립대학의 등록금환원율은 100~109%로 이는 외국의 200~500%는 물론 광역시 소재대학 평균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특히 현금지출환원율이 100%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결론.

지금까지 대전지역 4개 사립대학의 예결산서를 분석하고 회계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았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예산 축소와 지출예산 확대 등의 뺑튀기 예산편성이다.

수입의 80%를 차지하는 등록금은 축소(표1)하고 보수(표7), 관리운영비(표8), 고정자산매입지출(표13~17) 등은 확대 편성하여 그만큼의 등록금 인상요인을 늘리는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한 과도한 이월예산 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법인전입금과 국가지원금의 부족이다.

경상비 전입금이나 자산전입금은 고사하고 법정부담전입금조차도 많아야 32% 정도만 내고 있다. 국가지원금 또한 운영수입대비 5~6%수준이다(표3~5). 대한민국 고등교육 공공부담율은 23%로 이는 OECD국가 평균인 76%의 1/3도 못되는 수준이다.

셋째, 과도한 적립금 적립이다.

학교발전을 위해 적정수준의 적립금은 필요하다. 하지만 예산에 비해 적게는 30억에서 크게는 100억까지도 적립금을 쌓고 있다(표9~12). 이는 뺑튀기 예산이 그대로 적립금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자산매입지출(토지매입비, 건축매입비, 구축물매입비, 건설가계정)의 법인부담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학교시설투자에 법인의 부담은 12%에서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표13~17). 이는 등록금으로 학교운영에서 자산매입까지 하는 것으로 법인이 시설투자에 기여가 거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적립금과 고정자산 취득에 있어 등록금 현금환원율을 100%로 맞추고 적립금이나 자산매입지출은 등록금수입액의 5% 이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예결산에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문제점 해결과 학생에게만 전가되는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재정확보를 통한 국가의 재정지원이다.

교육은 단순히 수혜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재정능력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기준 OECD 국가의 GDP대비 고등교육부분 공공재원 평균비율 1.1%에 비해 한국은 0.48%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국의 민간재원비율은 75.4%로 OECD평균의 29.6%의 두배를 넘어서고 있다. '투자없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다'라는 말을 학생들에게만 적용하여 등록금 더 내라고 적어도 OECD평균 수준까지 재정지원을 높여야 한다.

둘째, 법인의 책임성 강화이다.

사립대학 법인의 존재이유는 교육투자이다. 하지만 설립이후 실질적인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법정부담금조차도 내지 않으면서 국가의 지원과 학생의 등록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파렴치한 것이다. 책임성강화를 위해 법인의 전입금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산 매입지출에 있어 법인부담률을 정해 일정수준의 부담을 의무화 해야한다.

셋째, 대학예산편성 합리화이다.

현재 사립대학 예산편성은 전년도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합리적 예산편성을 위해선 예산편성 직전까지 집행된 예산과 남은 기간 집행예정액을 결산양식에 따라 정리한 가결산(추경결산)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이월, 적립금의 과다축적을 지양하고 과도한 자산지출 자제,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 최소화, 소모성경비 절감 등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이는 법개정을 통해 적립금 조성 허용기준을 명시와 자산적 지출의 한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 폭등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8, 충북등록금넷

“사립대학 예산 분석 실무”, 2008,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www.infor.sahak.or.kr